

■ 한국의 유교책판·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 세계기 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목판인 '한국의 유교책판'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10월 9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는 10월 4~6일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한국의 유교책판과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으며,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추진해 등재가 확정됐다.

한국의 유교책판은 305개 문중에서 기탁한 책판 718종 6만 4천226장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유학자의 문집, 성리학 서적, 족보·연보, 예학서(禮學書), 역사서, 훈몽서(訓蒙書·어린이를 위한 책), 지리지 등이다.

조선시대 유교책판을 만든 경북 지역의 지식인들은 문중, 학맥, 서원,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꾸려 '공론(公論)에 의한 공동체 출판'을 진행했다. 책판들은 현재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생방송한 비디오테이프, 담당 프로듀서의 업무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진행표, 큐시트, 기념음반, 사진 등 2만522건의 자료를 포함한다. 전담인력 1천641명이 투입된 이산가족 생방송에는 사연 10만952건이 접수됐으며, 절반을 조금 넘는 5만3천536건이 방송에 소개돼 1만189건의 상봉이 이뤄졌다.

이번에 한국의 유교책판과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13개로 늘어났다.

■ '유네스코 유산'으로 불붙은 한·중·일 역사전쟁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과 여론전을 펼쳤다.

일본은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인이 대규모로 강제 동원돼 혹사당한 장소 7곳을 포함한 산업유산 23곳을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 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산업'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본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 반영 방법을 두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마지막까지 협상을 거듭했다. 결국 양국은 강제노동 사실을 유산 등재 결정문 본문에 넣는 대신 '의사에 반해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는 문구를 일본 대표단이 성명서로 발표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일본 정부는 세계기록유산을 두고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문건'과 '위안부 자료, 일본제국 군대의 성노예'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극도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유네스코는 난징대학살만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했고, 위안부 기록물은 등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광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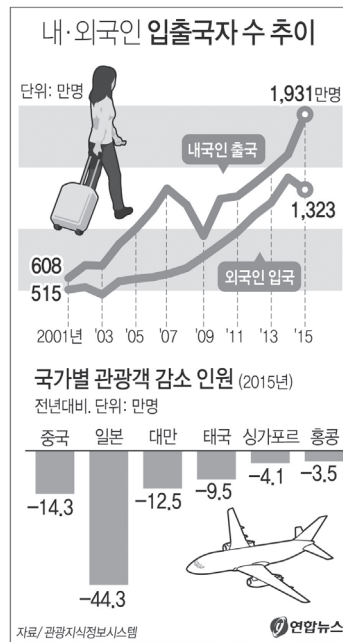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천323만1천651명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감소했다. 1~5월에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6~8월에는 관광객이 40%나 감소했다.

메르스로 줄어든 관광객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겨울에 하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여름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세일 조기 실시의 결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매출은 직전 세일보다 2.5배 증가했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기존 50m에서 75m로 넓히고 75m 이상 구역에는 제한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북의 명동이나 광화문 등에 비즈니스 호텔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 외국인 관광객 12년 만에 감소



2015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줄어들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천323만1천651명으로 2014년의 1천420만1천516명보다 6.8% 감소했다. 방한 관광객이 12년 만에 감소한 것은 6~8월에 있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 때문이었다.

2015년 1~5월에는 누적 관광객 증가율이 10.7%를 기록할 만큼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6~8월

에는 관광객이 40%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방한 관광객은 2015년 10월부터는 전년보다 약 5.0% 증가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5년 6~8월 방한 관광객이 줄어든 데에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6월 방한 유커 수는 전년보다 약 45.1%, 7월에는 전년보다 약 63.0%, 8월에는 전년보다 32.2% 각각 감소했다. 이 때문에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한 전체 유커 수는 598만1천70

명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인화가지 하락과 메르스 사태가 겹쳐 2015년에 전년보다 19.4% 감소한 183만7천782명을 기록했다.

2015년 12월의 경우 방한 관광객 수가 2014년 같은 달보다 2.8% 많은 111만6천45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은 46만5천218명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관광공사는 “12월은 중국 해외여행 비수기이지만 크루즈 입항 등이 많으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에 전년보다 20.1% 늘어난 총 1천931만430명이 출국했다. 관광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 노선 증가로 인한 근거리 여행객이 많아지고, 대체공휴일 등으로 연휴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2015년 관광수지는 6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광수입은 전년보다 14.3% 감소한 152억 달러였으며 관광지출은 전년보다 9.3% 증가한 213억 달러였다.

■ 코리아 그랜드 세일 앞당겨 실시

메르스로 위축된 국내 관광시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겨울에 하던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8~10월로 앞당겨서 실시했다.

2015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매출이 3천457억원으로, 1천404억의 매출을 올린 직전행사(2014년 12월 1일~2015년 2월 22일)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행사는 쇼핑을 포함해 항공, 숙박, 엔터테인먼트, 뷰티, 식음료 분야의 총 342개 기업, 3만4천909개 매장이 참여해 2014년의 직전행사(135개 기업·2만6천914개 매장) 때보다 참여매장 수가 7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화장품업계의 외국인 매출은 229억원으로 직전행사보다 38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행사기간 동안 외국인관광객 2천482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여행에서 주로 구입하는 쇼핑품목 중 향수·화장품(25%)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의류(23%), 식료품(19%)이 이었다.



▲ 8월 1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코리아 그랜드세일' 개막식을 마친 김중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환영하고 있다.

쇼핑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품의 품질(24%), 가격만족도(23%), 상품의 다양성(14%) 순으로 나타났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관련 요건이 좀 더 엄격해졌다. 학교 주변 호텔 건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건설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인 50~200m 구역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기존 50m에서 75m로 넓히는 대신, 75m 이상 구역에는 제한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예외 규정은 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대신, 호텔 건립 및 운영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우선 단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과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광호텔' 이름을 달고 모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텔은 반드시 100실 이상을 갖춘 비즈니스호텔로 지을 것을 규정했다.

이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받을 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변 풍속을 해치는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 비즈니스 호텔, 서울 강북서 뜨거운 경쟁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 관광지(명동·경복궁 등)가 모여 있는 서울 강북에서 비즈니스호텔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는 유커들 중에서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줄고 개별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4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중 개별여행객이 68.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국인 개별 관광객은 2013년 53.8%에서 2014년 57.8%로 증가한 반면, 단체관광객은 42.8%에서 39.4%로 감소하는 추세다.

롯데호텔은 명동에 '롯데시티호텔명동'과 'L7 명동'을 개관했다. 롯데호텔은 마포에도 롯데시티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투어도 중구 회현동에 비즈니스 호텔인 '티마크 그랜드 호텔'을 2016년 5월에 열고 중국 개별 여행객 유치에 나선다. 신라호텔은 7번째 신라스테이를 광화문에 개관했으며 이미 서대문과 마포에서 신라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국내 호텔 외에도 프랑스의 호텔 체인 루브르호텔그룹도 명동에 진출한다. 루브르호텔그룹의 4성급 호텔 브랜드인 '골든 툴립'은 서울 M호텔과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고 '골든툴립엠호텔'을 명동에 2017년 1월 개관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교통편이 있는 단체여행객과 달리 개별 여행객은 시내 중심에 있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운 비즈니스 호